

# ‘딸감’된 농공단지 가로수

### 무안 청계단지 일부업체 52그룹 무단 벌목 물의

무안군 청계면에 위치한 청계 농공단지 일부 입주업체가 단지내 가로수 일부 무단 벌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 청계 농공단지 협의회는 지난 2월말 무안군과 협의회 없이 전기톱으로 25년생 은행나무 52그룹을 무단으로 벌목했다. 현장 확인결과 잘린 나무 밑동 지름은 20~35cm 가량이며, 아예 뿌리째 뽑힌 곳도 10여 곳에 이르렀다.

더욱이 잘라낸 나무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3곳과 인근 마을 주민이 딸감이나 정원화단 테이블 받침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공단지 협의회와 업체는 단지내 은행나무가 업체들의 차량 진·출입 불편과 통신장애를 이유로 나무를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공단지 협의회나 업체들은 나무를 자르기 전에 군 관련부서나 민원실에 알리지 않았다. 군은 무단 벌목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나무



무안 청계농공단지협의회 측이 단지내 25년생 가로수 52그룹을 무단벌목해 파문이 일고 있다.

를 다시 식재토록 할 방침이다. 군은 농공단지 관리 소홀과 함께 아직 수목과 수령도 정해지지 못해 복지부동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청계 농공단지협의회장은 “공단내 다른 업체가 무안군에 교통문제로 전기선 관련 민원을 제기, 군에서 벌목을 해도 좋다고해 위법인 줄 모르고 민고 관리소장에 지시했다”며 “서류만 확인했다더라 이런 일들이 발생

되지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름 25cm 가량의 은행나무의 경우 조달청 단가가 그루당 130여만원여서 52그룹을 복구하려면 공사비 포함 9000여 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협의회와 협의해 나무를 식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 전남 서부권

## 신안 도초도에 ‘수국꽃 공원’

신안군 도초도에 이국적인 수국(水菊)을 주제로 한 공원 과 도보길이 조성된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도초도 일원에 산수국, 나무수국, 제주 수국 등 60여 종 10만여 그루를 심어 ‘천사 수국길’(화도 선착장~시목 간 11km), 수국 하이킹 길(자전거 도로)와 5만㎡ 규모의 ‘수국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초도는 천혜의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한 사북해수욕장,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등이 있으며 흑산, 홍도 관광의 중간 기착지다.

신안군 관계자는 “수국 식재사업이 끝나고 형형색색의 수국꽃이 만개하는 7~8월에 ‘수국축제’를 열어 관광객을 불러 모을 계획”이라며 “봄·봄, 여름 수국, 가을 국화, 겨울 동백 등 ‘사계절 꽃 피는 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국은 차를 끓여 먹거나 신낭충, 말라리아 등을 치료하는 약초로도 쓰이고 토양의 산도나 기후에 따라 색깔이 변한다 해 일명 ‘칠변화’라고도 부른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 병아리들의 매화 나들이

해남군 산이면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46만㎡)의 보해 매화농원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만개한 매화터널을 거닐며 즐거워하고 있다. 1만5000여그루의 매화나무에서 내뿜는 매화향이 전국 어린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 무안 ‘항공산업 클러스터’ 탄력

### 郡, 세계적 항공기업 시버리그룹 투자유치

무안 국제공항이 세계적인 항공 허브로 설립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31일 19만 2천여㎡에 시 회의실에서 세계 최고 항공투자 건설링 회사인 시버리 그룹(Seabury Asia Pacific Group)과 항공기 부품, 해체회사 합작을 위한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시버리 그룹은 6개월에 걸쳐 무안 국제공항과 한중 산업단지를 포함한 주변 부지에 세계적인 항공 클러스터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버리 그룹은 “무안은 동북아의 허브에 위치해 철도, 육로, 항공 등 교통 인프라가 좋고, 세계적인 인적 인프라와 첨단 산업 인프라 등 가장 좋은 조건이 있어서 해당 사업 잠재성

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시버리 그룹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글로벌 항공기업 600개 업체 가운데 한국의 항공산업에 가장 적합하고 매출액 규모 1억달러 이상 회사 120개를 엄선해 무안 항공 클러스터 참여를 권장했다.

이에 따라 보잉·에어버스사를 비롯해 허니웰(Honeywell), 록웰(Rockwell) 등 세계 유명 항공기업 40여 개 업체가 무안 항공클러스터 입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 항공클러스터 사업은 향후 동북아 항공시장의 급성장을 예상할 때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 해남경찰 맞춤형 치안

### ‘해피 아일랜드’ 발대

해남경찰서(서장 박승주)는 지난 30일 화산파출소에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실정에 맞는 치안 활동을 위한 ‘해피 아일랜드’ 발대식을 가졌다.

해남경찰청은 이날 도서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결의문 낭독을 통해 성공적 시행을 다짐했다.

박승주 서장은 “행복한 섬 만들기”를 위해 기관과 단체, 주민이 하나가 돼 치안서비스 뿐 아니라 의료·정보통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피 아일랜드’는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아 치안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유인 도서민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함평 교육개선 25억 투입

### 郡 예산 1% 규모...영어·무상급식 등 지원

함평군은 올해 지역 교육개선 개선과 글로벌 인재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역 교육 환경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좋은 학교,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보다 5억여

원 늘어난 총 25억원의 교육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군 전체 예산 규모의 1%에 해당하는 교육예산을 편성하겠다’는 해답하는 교육예산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우선 군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영어체험교실,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 영어 꿈나무 육성 등의 영어교육 지원사업에 6억 원을 투입한다. 또 학교급식 무상지원사업으로 관내 초·중학생의 친환경 급식을 위해 3억5000여 만원을 지원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및 지역 농업 발전을 도모 계획이다.

특히 총 5억원을 투입해 관내 14개 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학력 증진, 미래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육성 등을 지원하는 교육환경발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 걸어서 변산 한바퀴...명품길 열렸다

### 새만금 전시관~줄포 생태공원 66km 마실길 완공

경관이 뛰어난 변산반도 해안 바닷가를 따라 걷는 총 66km 길이의 ‘변산 마실길’이 완공됐다.

‘변산 마실길’은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새만금 전시관에서 줄포 자연생태공원까지 총 길이 66km(4구간·8코스)로 새롭게 조성됐다.

1구간 ‘노을길’ (총18km·6시간 소요)= 새만금방조제가 시작되는 서두(西斗)터를 시작으로 대항리 패총 조개무덤~변산 해수욕장~송포포구~노리목~사망(土望)마을~고사

포 송림~하삼전망대~수성당을 거쳐 수만권의 책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듯한 책석강까지 이어진다.

2구간 ‘체험길’(총14km·4시간 소요)= 해남이 공원에서 시작해 모항 해수욕장·갯벌체험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격포항을 출발해 해남이 공원, 격포 봉화대, 이순신 세트장을 거쳐 바닷가의 절경이 아름다운 개(犬)섬이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웅장함을 자랑한다. 공항마을을 거쳐 상록 해수욕장~연포마을~습설도로 이어진다.

송산농장에서 산림청 휴양림 구간은 해안 바닷가 암반층에 난간과 데크시설을 설치해 새롭게 탐방노선을 구축했다. 자연의 신비로움을 맛 볼 수 있는 곳으로 추천하고 싶다.

3구간 ‘문화재길’(총23km·6시간 소요)= 모항 갯벌체험장부터 진서면 마동방조제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마동마을 앞바다 제방을 따라 칠산 어장의 전성기를 누렸던 작당을 거쳐 곰소염전까지 이른다. 금강 가족타운에서 마동방조제 구간의 낙영길은 탐방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4구간 ‘자연생태길’(총7.5km·2시간 소요)= 구진마을을 출발해 호



랑이가 목욕을 하고 너른 암반에서 몸을 말렸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호암마을, 호암저수지, 웅연조대, 줄포 자연생태공원까지의 코스이다. 6만㎡에 달하는 줄포 자연생태공원은 지난해 ‘탐사르 습지’로 지정된 바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변산 마실길’을 새만금 방조제사업과 병행해 동진, 계화, 하서 내륙을 잇는 한편 올해 줄포에서 동진까지 이어지는 부안 ‘순

환경 마실길’을 완성시킬 계획”이라며 “많은 탐방객들이 변산 마실길을 찾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변산면 도청리에 위치한 전북 학생해양수련원 광장에서 ‘변산 마실길’ 개통 및 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윤길호기자 knews@

# 전북

## 단신

### 道, 청년창업 교육생 모집

전북도는 오는 5월 6일까지 도내 거주 청년층(20~39세) 대상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제12기 청년창업 교육생을 모집한다. 창업교육을 필요로 하는 도내 청년층은 직접 방문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www.jbso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100시간에 걸쳐 이론교육과 함께 현장실습, 도내의 우수 기업 벤처마당을 실시한다. 교육 수료후 창업시에는 창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전북도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 ‘리모델링’ 군산 청소년수련관 개관

군산 청소년수련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군산시는 사업비 30억(국비 21억·시비 9억)을 들여 옛 시립도서관 전 시설을 청소년수련 시설로 리모델링했다. 청소년수련관은 세미나실과 회의실, 숙소(141명 수용), 실내

골프연습장, 정보 검색실, DVD실, 동아리실, 연회장 등 수련시설을 갖췄다. 시는 청소년수련관을 지명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군산기독교청년회(YMCA)와 3년간 민간위탁을 체결했다. 문의 063-461-4166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정읍 ‘공무원 블로그·트위터 기자단’ 운영

도내에서 처음으로 정읍시가 ‘공무원 블로그·트위터 기자단’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 대표로 활동할 55명의 기자단을 구성해 지난 31일 위촉식을 가졌다. 이들은 각 부서별 새로운 정책이나 행사 등에 관해 소개하거나 기자단이 직접 경험한 체험담 등

을 정읍시 블로그(blog.naver.com/jeongeupnews)와 트위터(twtkr.com/ jeongeupnews)에 올린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시민 블로그 기자단’ 29명을 위촉, 정읍의 문화·관광·음식 등을 소개해 네티즌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김제출신 장성복 전국장사씨름대회 우승

김제출신 장성복(30·동작구정)선수가 최근 경북 안동에서 개최된 ‘제41회 회장기 전국 장사씨름대회’에서 울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장 선수는 고등학교와 대학은 물론 일반·실업팀 선수들

이 총 출전한 통일장사부 경기 결승전에서 장사급인 김민선(구미시청) 선수를 안대리와 돌림배지가 각각 한관승을 거두며 2-1로 승리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홍윤성기자 knews@

### 작년 복지 부정수급 4천만원

지난해 전북도내 복지관련 부정수급액이 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 시 등 10개 시·군 47가구가 소득 등 지원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총 3962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시·군별로는 보령 ▲전주시 1가구 194만원 ▲군산시 7가구 493만원 ▲익산시 10가구 1328만원 ▲정읍시 2가구 47만원 ▲김제시 2가구 83만원 ▲완주군 1가구 416만원 등이다.

또 진안·임실·순창군은 각각 2가구로 377만원, 107만원, 317만원의 순이며, 고창군은 도내 최다가구인 18가구로 총 59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도는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해당금액을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유지해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익산 백제 古都 복원 ‘시동’

### 市, 국비 20억 투입 전문가 포럼 등 사업 본격화

백제시대 문화자산을 되살리기 위한 익산시의 고도(古都) 육성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7900억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백제 당시의 궁궐터와 사찰 등이 자리했던 금마면과 왕궁면 일원 43.7km에 대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역사물의 복원 ▲역사체험 및 체험기반 정비 ▲고도지역 거주 주민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시는 지금까지 확보한 국비 20억원으로 올해 고도육성사업을 위한 제도정비 사업과 시민에 대한 교육, 아카데미 운영, 전문가 포럼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도육성사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시민,

공무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한시대부터 백제시기까지 왕도로 추정되는 금마면 중심지와 인근 7개 전통마을(117만6000㎡)에 관아터와 객사 터를 복원하고 유적터물길과 전통경관을 되살린다.

또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가 착수하고 미륵사지~금마 백제전통문화체험단지~왕궁리 유적을 연결하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사탐방로 개설과 전통 한옥형 숙박촌도 조성해 외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10년 후에는 익산이 백제 문화의 수도로 새롭게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o0418@



## 고창 양민학살 희생자 추모제

고창군 6·25 양민 희생자 제전위원회(위원장 황금선)는 4일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 위령당 광장에서 양민 희생자 추모제를 개최했다. <고창군 제공>